THE GLOBAL 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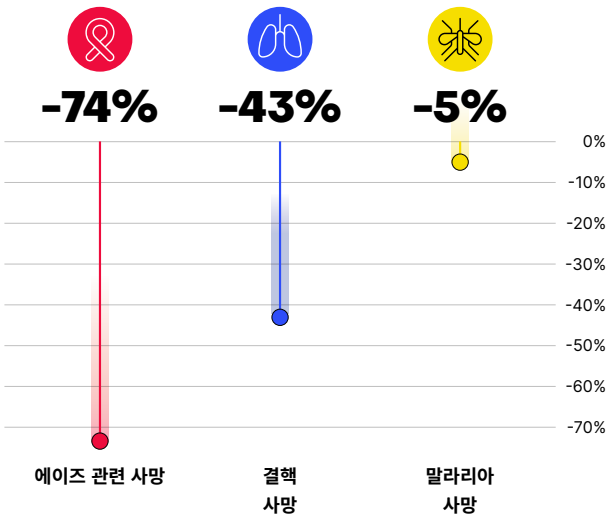
대한민국

그리고 글로벌펀드: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협력하다

한국과 글로벌펀드 간의 20년 이상의 파트너십은 HIV, 결핵, 말라리아 퇴치 그리고 더 건강하고 안전하며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글로벌펀드를 통한 보건 투자로 7천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글로벌펀드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은 HIV, 결핵, 말라리아 퇴치에 있어 전환점을 마련했고, 전체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2년 글로벌펀드 설립 이래, 우리가 투자하는 국가에서는 이들 3대 질병으로 인한 연간 사망률이 절반 이상(63%)까지 감소했습니다.

제8차 재정공약회의에서 대한민국은 2026~2028년 기간 동안 미화 1억 달러 공약을 발표하여, 글로벌펀드 지원 및 감염병 퇴치에 대한 국가의 리더십을 재확인했습니다.



글로벌펀드의 지원을 받은 국가들 중에서(2002-2024)

우리의 파트너십

한국은 글로벌펀드 설립 이래 지금까지 미화 2억7천만 달러를 기부하며 글로벌펀드를 지원해 왔습니다. 세계 보건은 한국의 국제 협력 의제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서 한국은 미화 1억 달러로 한국 역대 최대 금액의 기부를 공약했는데, 이는 한국의 제6차 재원 충원 공약인 미화 2천 5백만 달러에서 4배 증가한 금액입니다. 한국은 건강을 인권과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로 강조하며, 특히 전 세계 공공재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전염병 위협으로부터 세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집단적 공동 참여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2018년 글로벌펀드 이사회에 합류했습니다. 그 이후로 글로벌펀드 거버넌스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2025년에 한국은 이사회에서 투표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한국은 글로벌펀드에 보건 의료 물품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최소 미화 9억 3,200만 달러의 보건 제품을 제공해 왔습니다.

파트너십 우선순위 분야

한국은 세계 보건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사람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에 부응하여 보편적 의료 보장 구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글로벌펀드와 함께합니다.

보건 및 지역사회 시스템 강화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최대 규모의 다자간 기금 제공자로서, 글로벌펀드는 2024~2026년 기간 동안 공식 및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에 미화 6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우리의 기금은 자원과 역량을 확보하여 보건 및 지역사회 체계가 다른 질병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 HIV, 결핵, 말라리아 프로그램에 대한 전 세계적 투자로 약 29억 입원 일수를 줄이고, 55억 건의 외래 진료 방문을 예방했으며, 1,030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창출되었습니다.

글로벌 보건 안보 강화
글로벌펀드는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보건 시스템과 질병 감시에 투자하여 전 세계의 발병을 감지, 추적 및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HIV, 결핵, 말라리아를 퇴치함으로써, 우리는 또한 국가들이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의존하는 체계를 강화합니다. 우리의 투자는 자원이 감염병 발생이 처음 확인되는 지역사회 수준에 도달하게 하며, 각국이 발병에 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명을 구하고 경제를 보호하며 글로벌 보건 안보의 토대를 강화합니다.

위기 대응
글로벌펀드는 위기, 분쟁, 인도주의적 상황에서 민첩하게 대응하는 파트너로서 진전의 성과를 보호하고 영향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합니다. 2002년 이후, 글로벌펀드는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수단, 사헬을 포함한 까다로운 운영 환경에 24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긴급 기금과 장기 투자를 통해 글로벌펀드는 HIV, 결핵, 말라리아 서비스의 연속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가가 급성 충격과 장기적인 위기를 모두 견딜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도록 지원합니다.

혁신 조성
공공 및 민간 투자를 통해 주도되는 과학적 진보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질병 예방, 치료 및 관리의 주요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글로벌펀드 파트너십은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혁신을 이끌어내며, 그 규모 확대를 가속화하여 더 빠른 진전과 더 큰 영향을 달성합니다.

HIV 자가 검사는 안전하고 기밀이 유지되며 편리한 옵션을 제공하여, 기존 서비스로는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힘을 실어줍니다. 수백만 개의 자가 검사 키트가 현재 글로벌펀드의 공동 조달 체계를 통해 매년 조달되고 있으며, 이는 검사 접근성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반영합니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예방 도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레나카파비르는 1년에 두 번 주사하는 약물로 HIV 예방에 거의 100% 효과적입니다. 글로벌펀드는 2028년까지 300만 명에게 레나카파비르를 제공하겠다는 파트너들과 함께 약속했으며, 이는 새로운 감염을 줄이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입니다.

글로벌펀드는 양방향 및 분자 검사를 포함한 신속하고 통합된 결핵 진단의 확대를 지원합니다. 오늘날, 지원 대상 국가의 결핵 발병 사례 중 50% 이상이 신속 진단 도구를 사용하여 발견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기 치료가 가능해지고 전염이 감소합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점점 더 여러 질병에 대한 검사를 지원합니다.

글로벌펀드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차세대 살충제 처리 모기장의 보급을 지원합니다. 2024년에만 차세대 모기장의 비중 증가를 포함하여 1억 6,200만 개의 살충제 처리 모기장이 배포되었으며, 이는 위험에 처한 인구를 보호하고 공중 보건 위협으로서의 말라리아 퇴치를 향한 진전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파키스탄: AI가 결핵 퇴치 진전을 어떻게 주도하고 있는가



파키스탄 파이살라바드의 흉부 진료 캠프는 결핵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를 제공합니다.
The Global Fund/Vincent Becker

결핵은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감염병으로 매년 1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새로운 혁신, 특히 인공지능(AI)은 결핵과의 싸움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AI 기반 도구는 디지털 흉부 X선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에서도 조기에 더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파트너의 지원을 받는 글로벌펀드의 투자가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파키스탄과 같은 질병 부담이 높은 국가에서는, AI 보조 선별 검사가 더 빠른 치료, 누락 사례 감소, 더 나은 건강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핵 외에도 이러한 플랫폼은 다른 질병을 감지하여 효율성과 비용 대비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2021년 이후 글로벌펀드는 20개국 이상에서 AI 기반 선별 검사를 확대하기 위해 1억 9,3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글로벌펀드 소개

글로벌펀드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를 퇴치하고 모두에게 더 건강하고 안전하며 공정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세계적인 파트너십입니다. 글로벌펀드는 매년 최대 40억 달러를 조성하고 투자하여 100여 개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감염병 퇴치, 보건의료체계 강화, 팬데믹 대비 태세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002년 이후 글로벌펀드는 7천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